

이코노 & 비즈 피플

윤홍근 BBQ 회장

“세계시장서 맥도날드 잡겠다”

패밀리 레스토랑 결합... '뉴 식문화' 개척 2020년까지 세계 5만개 가맹점 운영 목표



“치킨이 더이상 간식이 아닌 식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패밀리(가맹점) 사장들과 함께 희망을 그려가며 천년기업을 만들겠습니다.”

“최근 은퇴를 앞두고 실버창업을 준비하는 베이비부머와 취업난 때문에 창업에 눈을 돌리고 있는 청년층에 대한 조연도 아끼지 않았다.”

한 때 '통큰 치킨'으로 프랜차이즈 치킨업계가 논란의 중심에 섰던 윤 회장이 “다른 제품을 팔기 위한 미끼 상품으로 원가 이하에 치킨을 파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고 자영업자들을 죽이는 행위”라며 “프랜차이즈는 자영업자의 연합체로 골목상권을 살리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문기자 emlee@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



“사랑으로 버무렸어요”

28일 오후 3시 (주)광주신세계(대표 조창현) 임직원들이 백화점 직원식당에서 '2012 사랑더하기 행복나눔 김장김치 캠페인'을 열고 지역 결손 가정에 전달할 김장김치를 담고 있다. <주)광주신세계 제공>

삼성 표적이 된 '기아차'

광주권 지역경제 운동사 <33>

아시아자동차공장 유치운동 ⑨

자산운용 명목 기아주식 매입...2대 주주 군림

▲석연치 않은 정부의 승인조치 1992년 7월 4일 삼성의 상용차 기술도입 및 생산을 허용한 정부는 자동차업계를 비롯 경제계나 언론으로부터 석연치 않은 졸속행정이란 비난에 직면했다.

삼성이 자동차 업계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막상 현실화 되자 현대, 기아, 대우, 쌍용 등 기존 업체가 긴장을 감추지 못했다.

삼성은 기존 보유주식을 통틀어 총 548만1581주의 기아자동차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다. ▲얼룩말과 사자 이는 기아의 전체 발행주식(6839만9674주)의 8.0%에 달해 6월초의 5.8%보다 지분이 2.2% 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카드사 경영난은 엄살

수수료 사상 첫 9조원 넘을듯

경영난을 호소해온 카드업계의 올해 가맹점 수수료가 사상 처음으로 9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카드 모집 비용은 80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여 자구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2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등 카드사들의 올해 상반기 가맹점 수수료는 4조 4122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4조 956억원보다 3000억원 넘게 늘었다.

농수산물 사이버거래 1조 돌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T(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거래실적이 개장 3년여 만에 1조원을 넘어섰다. 올해는 ▲배추·무 계약재배 ▲양곡 사이버거래 ▲대형소공물 사업자와의 농산물 공동판매 등에 힘입어 연간 목표인 8830억원을 넘어 지난 26일 1조원을 달성했다.

중 식재료 조달기관 선정에 따른 학교급식 사업 확대를 통해 6255억원 등 급속하게 성장해왔다.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www.eat.co.kr)는 농림수산물부가 농·수산물 전자 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9년 aT에 설립한 기관이다.

Advertisement for 'Global Talent Training NO.1' featuring New Bright Foreign Language School and Bukgyo Goryeogwan. Includes details about a 'Guangju Admission Explanation Meeting' for Chinese universities.

Advertisement for 'Gurakjeon Namgol-dang' (극락전 남골당) featuring a 'Seonmyang Parents and Your Aspirations' event. Includes text about a 'Seonmyang Parents and Your Aspirations' event and contact information.